

삼성중공업 MR 시장 진입, MR 선가 상승, 그리고 FSRU 3기

코멘터리

상승을 고대하는 신조선가지수는 또 보합...

① 신조선가지수는 11주째 128p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VLCC도 최근 \$92m LOI가 확인되었지만 \$88m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곧 \$92m VLCC 본 계약이 성사되고 클락슨에 입력되면 오를 것이고, 또한 LNG선 신조선가가 정상화될 경우 확실히 지수 상승을 목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② 삼성중공업이 MR탱커 시장에 진입하며, Mitsui로부터 5척 씨리즈를 수주했는데, 신조선가가 \$35m~\$36m으로 알려졌습니다. MR탱커 신조선가도 올랐습니다.

중국의 수주 뉴스들이 몇건 있습니다.

③ CIMC Raffles가 Ocean Rig으로부터 Semi-submersible Rig1기를 수주했습니다. 우리는 경합에 끼지 않았습니다. CIMC는 중국에서 Rig를 꽤 잘하는 조선사입니다.

④ 중국 Yangzijiang은 Mitsui로부터 캄사르막스 벌크 2척과, 여타 선사로부터 208k 뉴캐슬막스 벌크선을 수주했습니다. Yangzijiang은 얼마전 Yang Ming의 12,000teu 컨테이너선 5척도 수주했습니다.

중국의 수주는 꼭 악재만은 아닙니다. 최근의 신조선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당사 뷰에, 찾은 질의가 중국도 도크가 차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LNG와 관련해서는...

④ 레바논에서 FSRU 3척을 도입하기 위한 공급처 선정 입찰에서, 13개 PQ를 통과한 업체들에게 10월1일까지 입찰서류 마감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2019년초 공급처가 선정되고, 이 무렵 한국 BIG3의 FSRU 수주를 기대합니다. 다소 멀지만, LNG 시황은 중장기 건전하다는 의미입니다.

⑤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 중인 러시아 SCF의 아프라막스 쇄빙/LNG추진선 시리즈 6척 중 1호선이 다음달 인도됩니다. SCF는 그 성능/성과를 확인 후, 계속 선대 확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MO 2020의 대안 중 하나인 LNG 추진선도, 그 기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소 소강상태의 지루한 뉴스 플로우에, 주가도 약보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조선가 상승, 2분기 실적 호조, 빠르면 7월에 결정되는 Rosebank FPSO가 트리거가 될 것으로,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식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 긍정

- △ 삼성중공업 건조 + 나이지리아 로컬컨텐츠의 Total Egina FPSO Installation 준비 완료: 보너스!
- △ 삼성중공업, MR 탱커 수주 신조선가 \$35m~\$36m
- △ Tortue 플랫폼 입찰에, 대우조선해양 경합
- △ Lebanon, FSRU 3척 도입 입찰 진행: 결정은 2019년 초
- △ SCF, 곧 현대삼호중공업의 LNG추진선 인도 예정

△ 부정

- △ 중국 CIMC, semi-submersible RIG LOI

ASP & 실적관련(국내외)

△ 중고선가지수 101p로 반등, 안타깝게도 신조선가지수는 또 128p

- 중고선가는 VLCC가 \$87m으로 오르는 등, 탱커 강세, 케이프 벌크 상승, 파나막스 컨선 상승 등으로 101p를 탈환
- 그러나 신조선가는 전선종 보합에, 지수도 11주째 128p 제자리를 유지

△ 삼성중공업 건조 + 나이지리아 로컬컨텐츠 제작의 Total Egina FPSO Installation 준비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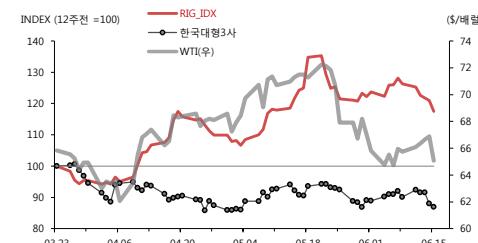
- Total의 Egina FPSO는 로컬 제작을 마치고, 현장 설치를 위해 나이지리아 남부 port-Harcourt를 향해 출항
- Buoy는 NOV의 관리 하에 로컬 Aeon Offshore가 제작을 마침
- >> 7월30일 출항 일정입니다. 1일식 일정이 빨라질 때마다 최대 5일, 1일 \$5m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 >> 무사 출항 및 3분기 서프라이즈를 기대합니다.

△ 삼성중공업, Mitsui로부터 MR 5척 \$35m~\$36m에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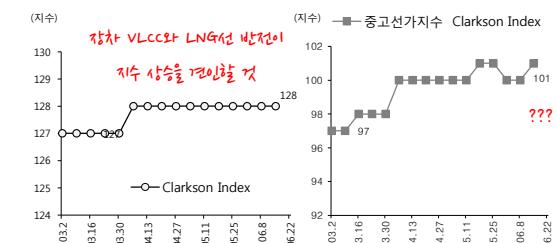
- 아래 섹션 참조

대표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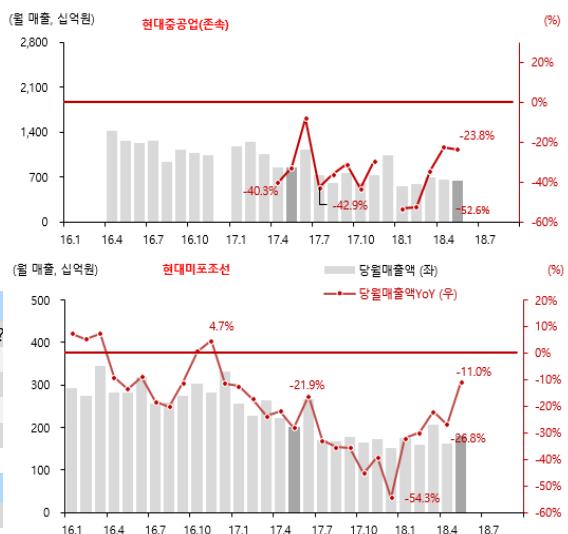
▶ 유가, RIG PLAYER, BIG3



▶ 신조선가와 중고선가 지수: 안타깝게도 또 보합



▶ 건조량 바닥의 2H17~1H18에서, 조금 개선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해양 / 시추

△ Tortue 플랫폼 입찰에, 대우조선해양 경합

- BP의 Tortue FPSO 이후, Platform 입찰서류도 이번주 접수: Living Quarter, Utilities facility로써 GoFLNG 옆에서 지원 가능
- 중국 Cosco Shipping Heavy Industry, CIMC Raffles,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 경합 중이며
- 중동의 Lamprell, 싱가포르 및 유럽 제작사들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짐
- PQ는 2월에 마친 바 있고, EPC 결정 및 계약은 연말로 잡힘, Tortue-Ahmediyim의 가동은 2021년 말로 예정
- >> FLNG는 Golar의 개조형 GoFLNG로, FPSO는 TechnipFMC+

(04월1주) ▼ BP의 Tortue는 TechnipFMC+COSCO 컨소시엄으로 중국에서 제작이 유력해짐: 큰 악재

- TechnipFMC+COSCO가 경쟁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Upstream은 업데이트
- BP가 마지막 순간 다시 마음을 바꿀 수도 있지만, 만약 중국을 선택하게 된다면 아프리카 FPSO를 최초로 중국에서 건조하게 되는 것
- BP의 선택이 향후 여타 오일메이저들에게도 중국산 아프리카 FPSO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
- Technip이 최종 승자가 될 경우, COSCO는 Hull과 LQ(Living Quarter)와 Integration을 담당할 예정이고, 나머지 탑사이드는 TechnipFMC가 여타 제작사와 하청 계약을 할 수도
- 중국을 선택한 배경이, 가격 때문인지, 로컬 컨텐츠에 대한 인식이 불투명하지만, 스케줄이 촉박한 프로젝트에서 중국을 선택한 것에 대해 시장은 놀라는 반응
- 이에 대해 BP는 알려진 일정 등의 리스크가 과장되었고, FPSO 자체가 아주 복잡하거나, 크지 않다고 설명
- FPSO의 가동은 2021년 말이고, 올해 6개월 정도의 FEED를 진행: spread-moored FPSO, 100m~200m 작업, VLCC 크기 hull에 탑사이드는 1.3만톤

(03월2주) ▲ Tortue의 로컬컨텐츠 관련 이슈

(01월4주) ▲ BP의 Tortue FPSO, 최종 미팅 열렸고, 곧 결정

(01월1주) ▲ BP의 Tortue FPSO, 발주 임박

(16년10월) △ BP의 Tortue FPSO, 이르면 연내 FEED 선정: HHI, SHI 경합

(16년09월) △ Tortue FLNG의 pre-FEED 담당으로 CH2M 선정

▽ Petronas의 Kasawari 플랫폼, 로컬사들 수주할 듯

- Petronas의 Kasawari 플랫폼 EPCIC를 로컬 MMHE나 Sapura Energy가 경합
- 말레이시아 외 해외사들의 입찰 참여여부는 불투명
- 1.9만톤 탑사이드를 포함해, 3만톤의 CPP

(2015년9월) Petronas의 Kasawari 발주 내년으로 연기

- Kasawari Gas Project의 CPP(10억\$, 3만톤 중 탑사이드 1.9만톤) 경합에서
- 3개 컨소시엄이 Technical & Commercial 오퍼를 마쳤고, 연내 발주(2019년초 가동)를 기대했으나
- Petronas는 사업 진행을 내년으로 연기: 내부적으로 MMHE의 잔고감소와 로컬발주 압력도 있는 것으로
- HHI+Ranhill Worley가 Saipem+Kencana Pet. 또는 MMHE+Technip보다 우세했던 것으로 전함

▽ 중국 CIMC, semi-submersible RIG LOI

- Ocean Rig이 발주하는 semi subs 입찰에서 중국 CMHI, 싱가포르 Keppel, Sembcorp 등을 제치고 중국 CIMC Raffles이 LOI를 따냄
- 초기 중국 대련조선, 외고교조선, Cosco SHI도 관심을 보였으나 포기한 것으로 전해짐
- 이는, 최근 중국 야드들이 재무/유동성 어려움, 인도 지연, 불황기 다수의 수주취소 때문에 RIG 수주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졌기 때문
- CIMC Raffles는 Friststad Engineering의 D90 design을 제시했고, CMHI는 Moss Maritime의 CS70 design으로 입찰에 참여

▽ 말레이시아 Yinson, 나이지리아에 FPSO 공급 협의

- 말레이시아의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 Yinson은 나이지리아 Anyala & Madu 필드에 투입될 FPSO 공급 및 용선 협의 중: 7년
- 이 필드는 NNPC(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이 지분 60%, Yinson의 자회사가 40% 지분 보유
- 결론은 6월 내로 낼 예정
- >> 기존 FPSO 투입인지, 신조/개조인지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 >> 로컬 컨텐츠가 걸린다면, 삼성중공업의 뜻입니다.

▶ LNG

△ Lebanon, FSRU 3척 도입 입찰 진행

- 레바논의 FSRU 도입 프로젝트 PQ에 13개 업체가 응찰
- : 일본 트레이더 Mitsui & Co, 한국 Kogas, 오일메이저 BP, 프랑스 Engie, 말레이시아 Petronas, 스페인 Gas Natural Fenosa ...
- ... 컨소시엄은 K Line + Fluor + Kawasaki, ENI + Qatar Petroleum International, Total + Hoegh LNG, BW + Vitol + Butech + Almabani General Contractors ...
- ... the Phoenicia energy consortium(Excelerate Energy + Shell + BB Energy), Golar Power + engineers CCC가 경합
- 몇달간의 질의, 사이트 투어를 거쳐, 10월1일 최종 입찰들을 제출하며
- 몇달의 검토를 거쳐 2019년초에 공급처를 선정
- 그러나 레바논은 지난달 9년만의 선거로 정부가 수립 중인 과정이어서, 일정 확정 여부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시장 평가
- 레바논은 2013년에도 13개 업체를 PQ 선정했지만, 정치 이슈 및 불확실성으로 지연된 바 있음
- 4월 20여개 업체에 발송된 제안서에서 상반기 내에 업체를 선정하였지만 이미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 대신 1개 또는 그 이상의 FSRU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2020년 가동될 3기 FSRU를 일괄 발주하기로 변경
- 레바논은 2025년 전기생산을 2배로 늘리는 계획 하에서 천연가스 도입을 계획함
- >> 운송사가 어디가 되었던, LNG-FSRU는 한국 BIG3에서 제작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 SCF, 곧 현대삼호중공업의 LNG추진선 인도 예정

- SCF가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6척의 LNG추진 쇄빙 아프라막스 탱커 6척 중 1호선이, 다음달 인도되어
- Shell에 7월25일부터 장기용선에 들어감: Shell이 용선한 2번째 선박이자, 시리즈 6척 중 6호선은 2019년 인도 예정
- 모두 6척 중 2척은 2018년 인도, 4척은 2019년 인도이며, 4척은 미용선 상태
- 그러나 이 4척도 SCF는 러시아정부와 러시아 북서부 - 유럽 항로 투입을 협의 중

△ 러시아 SCF, 지금 건조 중인 6척에 15척의 LNG-fuel 쇄빙 탱커, MR탱커 건조 계획

- SCF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곧 인도되는 dual-fuel 아프라막스 탱커의 성능을 확인하고
- 세부 사양 등을 조율해, 장차 LNG 추진, 쇄빙 탱커 선대를 현재 6척에서 더 늘려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함
- SCF는 Rosneft를 위한 LNG 추진 쇄빙 탱커 15척의 건조 책임을 맡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의 도움 하에 신생 Zvezda 조선사를 이용할 계획: 2020년 가동 예정



▶ 기타: 삼성의 포트폴리오 확대

△ 삼성중공업, Mitsui로부터 MR 5척 수주하며, MR탱커 시장 진입 공식화

- 통상 파나마스급 이상을 건조해오던 대형조선사 삼성중공업이 Mitsui & Co.로부터 MR탱커 5척 시리즈를 수주: 옵션 여부는 불투명
- 중국 블럭 제작 자회사 Ningbo가 MR탱커를 건조한 바 있지만, 삼성중공업- 거제의 MR 수주는 처음
- 이에 삼성중공업은 주력선종 및 최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MR탱커 시리즈 수주를 하겠다고 밝힘
- 수주 가능한 상황으로, 도크 가동률 개선, 높은 신조선가, 씨리즈 제작 여부, 생산성/효율성을 등
- 삼성중공업은 1974년 설립, Ningbo는 1995년 설립되어 블럭공장으로 운영되다가 6년전 처음으로 신조(17k- DWT heavy lift cargoship, 한국고객)했고 ...
- ... 이후 2013년 처음으로 그리스 Marinakis로부터 MR탱커 8척을 수주한 바 있음
- 신조선가는 \$35m~\$36m으로 양호: Mitsui는 Chevron 2척, Cargill 3척의 장기용선계약 기반으로 선박 발주
- 코모디티 트레이더, Cargill은 1년 내로 MR탱커 시황 개선을 예상한다고 언급
- >> 현대미포조선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만,
- >> 신조선가는 \$35m 이상으로 양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도 찾습니다.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

④Mitsui & Co→Samsung HI, PTK(50k) 5척

- 통상 파나마스급 이상을 건조해오던 대형조선사 삼성중공업이 Mitsui & Co.로부터 MR탱커 5척 시리즈를 수주: 옵션 여부는 불투명
- 중국 블럭 제작 자회사 Ningbo가 MR탱커를 건조한 바 있지만, 삼성중공업- 거제의 MR 수주는 처음
- 이에 삼성중공업은 주력선종 및 최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MR탱커 시리즈 수주를 하겠다고 밝힘

⑤Alpha Gas→Daewoo (DSME), LNG(173,400-cbm) 1척

- (06월2주 플래쉬) ▲ Maran Gas의 자매 Alpha Gas도, DSME LNG선 1척 옵션 발주
- 올해 3월 대우조선해양에 LNG선 2척을 투기발주한 Alpha Gas도
- 포세도니아 행사 기간에, 대우조선해양에 173,400-cbm LNG선 1척을 추가 계약함
- 이로써 Alpha Gas의 LNG선 선대는 2015년 건조 160k 1척을 포함해 총 4척이 됨

▼ 신조 발주설(뉴스 단계)

▽ Navios → Imabari, VLCC 2척 L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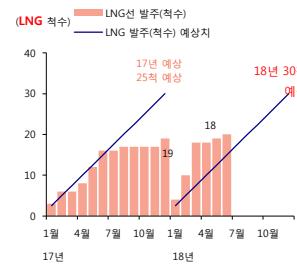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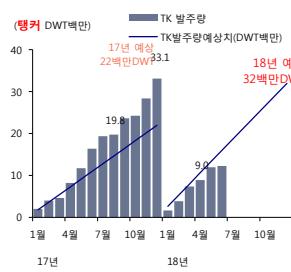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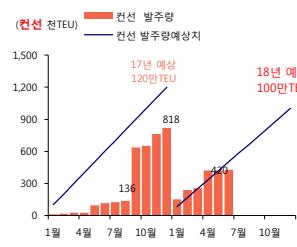
- Angeliki Frangous의 Navios Maritime은 일본 Imabari 조선에 VLCC 2척 발주: 2020년 인도, 궁금한 신조선가는 알려지지 않음
- Frangous의 또 다른 탱커 선사 Navios Midstream Partners는 대우조선해양에서 2척의 VLCC를 올해 3월에 발주한 바 있음
- Navios Midstream은 최근 2001년 탱커를 해체하며 2009년 VLCC를 형제 회사 Maritime로부터 인수했고, 또한 2000년~2001년 건조 2척의 해체도 고심 중

▽ Yangzijian, Mitsui의 캄사르막스 벌크 2척 등 \$578m 수주 공시

- 일본 Mitsui는 82k-DWT 캄사르막스 2척을 중국 양지장조선에 발주: 2020년 인도
- 이와 함께 208k-DWT 뉴캐슬막스 벌크선 2척도 수주했으며,
- 얼마전 알려진 YangMing의 12,000-teu 컨테이너선 5척도 수주
- >> 중국도 도크를 채워야 신조선가가 오릅니다.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 신조 발주 내역 - 한/중/일 주간

18년05월4주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Type	크기	인도	척수
----	-----	-----	-------	-----	------	----	----	----

중국	Taizhou Sanfu	18.5.25	아시아	Meghna Marine	BULK	64k DWT	2020	1
	Jiangsu New Hantong	18.2.1	유럽	Oldendorff Carriers	BULK	81k DWT	2019	2
	Chengxi Shipyard	18.5.17	룩미	CSL Group	BULK	40k DWT	2020	1
	GSI Nansha	18.1.1	아시아	CSSC Shipping (HK)	PTK	76k DWT	2019	2
	Zhejiang Zengzhou	18.1.23	유럽	Tom Worden Schiffs	BULK	7k DWT	2019~2020	4

18년05월5주

BIG6	Samsung HI	18.5.31	아시아	AET Tankers	TK	153k DWT	2020	4
		18.5.30	유럽	GasLog	LNG	180k cu.m.	2020	1
	Daewoo (DSME)	18.5.31	룩미	Guggenheim Capital	TK	300k DWT	2020	2

중국	Shanghai Waigaoqiao	18.5.1	한국	Polaris Shipping Co	BULK	180k DWT	2020	1
	Jiangsu New YZJ	18.2.9	유럽	Tsakos Shpg & Trad	BULK	82k DWT	2019	2
	Fujian Mawei SB	18.3.23	유럽	MarLink	CONT	1k TEU	2019	2
	AVIC Weihai Shipyard	18.5.25	Unknown	Stena RoRo AB	FERRY	1k Pass.	2021	1
	Dayang Offshore	18.2.1	중국	Unknown Chinese	TK	8k DWT	2019	1
	Aulong SB Co	18.1.1	중국	Unknown Chinese	FERRY	#VALUE!	2019	2

18년06월1주

BIG6	Hyundai Mipo	18.6.6	한국	Pan Ocean	CONT	2k TEU	2019~2020	2
		18.5.11	유럽	Yasa Shpg. Industry	PTK	50k DWT	2019	4
	Daewoo (DSME)	18.6.6	유럽	Maran Gas Maritime	LNG	173k cu.m.	2020	1

중국	Jiangsu New YZJ	18.5.1	Unknown	Unknown	BULK	208k DWT	2020	2
	Jinling Shipyard	18.6.6	유럽	Grimaldi Group	RORO	8k Lane m.	2021	6

18년06월2주

BIG6	Samsung HI	18.6.12	일본	Mitsui & Co	PTK	50k DWT	2020	5
	Daewoo (DSME)	18.6.7	유럽	Alpha Gas	LNG	173k cu.m.	2021	1
		18.3.2	유럽	Pantheon Tankers	TK	300k DWT	202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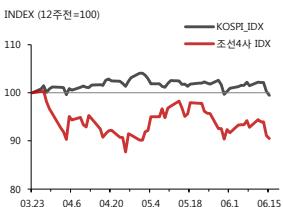
국영	Tianjin Xingang HI	18.6.6	중국	Sinopec	OTHERS		2019	1
민영	Jiangsu New YZJ	18.1.1	Unknown	Unknown	BULK	208k DWT	2020	2
	Jinling Shipyard	18.6.13	유럽	DFDS	RORO	7k Lane m.	2020	1

일본	Onomichi Dockyd	18.5.1	일본	Marubeni Corp	PTK	80k DWT	2020	2
	Kyokuyo Shipyard	18.3.21	일본	Maki Kisen	LPG	9k cu.m.	2020	1
	Oshima Shipbuilding	18.2.1	유럽	Oldendorff Carriers	BULK	100k DWT	202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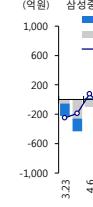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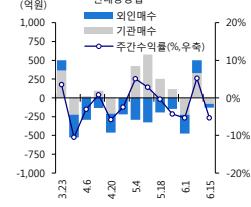
Peer Group 등 Index

▶ 한국 조선 대형3사, 중형3사 INDEX



조선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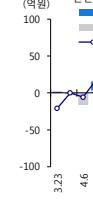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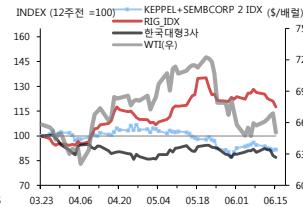
▶ 조선6사 수급



▶ 조선업 한중일



▶ 유가 VS 리그선주,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





국내 보도

▶ 공통 보도

▲ '선박신조 프로그램'에 18개 선사, 36척 신청...1조2천억원 규모

<http://lnr.li/rJwax>

최근 국적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한 선박 신조(新造) 지원 수요 조사 결과 총 18개 선사가 36척 신조 지원을 신청
컨테이너선 4척, 벌크선 17척, 탱커선 10척, 기타선 5척 등이며, 전체 선가는 1조1천835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이 2척 포함
신조 지원은 정부가 선박 건조 비용의 약 30%를 투자하거나 일정액을 보증하는 방식 등
신조 지원과 함께 선사의 선박을 인수(매입)한 뒤 선사에 재용선 해 유통성을 지원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S&LB-Sale and Lease Back) 프로그램에도 ...
... 11개 선사가 18척에 대한 지원 신청서
S&LB 신청 선종은 컨테이너선 4척, 벌크선 3척, 탱커선 11척으로 파악됐고, 전체 선가 규모는 2천307억원으로 추산
해수부는 다음달 1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되면 1년에 2번 정기 수요조사와 수시 수요조사를 통해 ...
... 선사 신조 수요를 파악하고 적기에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조선 '빅3', 수주 목표 순항...쉐브론 해양플랜트 관건

<http://lnr.li/H7mq4>

현대중공업그룹(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포함)의 올해 수주 목표는 132억 달러(약 14조원)인데, 지난 4월말까지 33% 정도 수주에 성공
삼성중공업의 올해 수주 목표는 82억 달러, 달성을 28% 정도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올해 수주 목표가 73억 달러인데, 벌써 60% 정도를 달성해 올해 초과 수주도 계획
국내 조선3사는 하반기 해양플랜트 수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
특히 미국 쉐브론의 20억 달러(2조 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낙찰자가 올해 연말쯤 결정

▲ 일본 조선사 LNG운반선 건조 '고전', 한국 조선3사 반사이익 커져

<http://lnr.li/Fzn0b>

일본 이마바리 조선이 벌크선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분야로 발을 넓혔지만 건조에 애를 먹는 것으로 파악
일본 최대 조선사 이마바리 조선이 트리니티 LNG트랜스포트로부터 수주했던 17만8천m³ 규모의 LNG운반선 한 척의 건조계약이 최근 취소됐다고 보도
: 이 배는 이마바리 조선이 2020년까지 인도 예정
이마바리 조선이 스페인 선사 엘카노로부터 수주한 LNG운반선 2척을 1년 가까이 늦게 인도하는 등 건조에 애를 먹고 있다는 점도 건조계약이 취소된 요인일 수 있다"고 전함
2014년 스페인 선사 엘카노로부터 LNG운반선 2척을 수주했지만 이를 건조하는 데 크게 어려움
당초 이마바리 조선이 엘카노에 LNG운반선 2척을 인도하기로 약속했던 시점은 2017년 중순이었지만 최근 들어서야 선박 1척을 간신히 인도
재팬마린유나이티드는 16만5천m³급 LNG운반선 4척을 지난해 중순부터 차례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화물창 설치 작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 올해 7월부터 인도
지난해 LNG운반선의 공정 지연 등으로 수백억엔 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

▶ 현대중공업 보도

▷ 현대중공업, '사망위로금' 대상자 10명에게 10억원 지급

<http://lnr.li/fqWib>

산업재해로 사망한 직원과 달리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별도 지원책이 없어 현대중공업 노사가 단체협상(단협)을 통해 마련
대상자는 분할 이전에 사망한 직원(1명)을 포함해 총 10명
현대중공업그룹에서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총 3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

▽ 현대重지주의 '노른자', 현대오일뱅크 상장 '딜레마'

<http://lnr.li/tzGe>

올 하반기 진행 예정인 현대오일뱅크 상장을 앞두고 상장사인 '현대중공업지주'(옛 현대로보티스)의 주주들이 불멘소리
상장사인 현대중공업지주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지주회사
하지만 사실상 현대오일뱅크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사업을 갖고 있지 않음: 전체 매출의 74.5%가 정유부문에서 발생
현대중공업지주 측에선 상장을 통해 들어온 자금을 기반으로 신사업을 강화한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청사진에 불과

▷ 현대중공업의 주 52시간 근무방안

<http://lnr.li/m8wkt>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 조기정착을 위해 퇴근 시간이 지나면 직원 PC 전원을 강제종료하는 등의 방안을 고안
다음 달 1일부터 퇴근 시간(오후 5시) 30분 이후 모든 사무직 직원의 PC가 자동적으로 꺼진다
연장근무를 하려면 퇴근 시간 전 근로시간 관리시스템을 통해 미리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 삼성중공업 보도

N/A



▶ 대우조선해양 보도

△ 정성립 사장 "한국 조선업, 현대·삼성重 '빅2'로 가야"

<http://lnr.li/fvPd>

국내 조선업에 대해 "어떤 형태든지 궁극적으로는 세계 조선시황이나 중국과의 경쟁, 앞으로 한국의 산업 진로 등을 볼 때 ...
... 빅2 체제가 훨씬 국가산업 측면에서 바람직한 체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
빅2 기업 중 하나에 인수되길 바라는 희망을 표현한 셈

▶ 대우조선 "목표는 작고 단단한 회사"

<http://lnr.li/YVno>

11일 서울 중구 본사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우조선은 단일 조선소로는 세계 최대 수준의 일감을 가지고 있다"며 ...
... "작고 단단한 회사를 만들어 새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말
대우조선해양을 연 매출 10조원 규모의 단단한 회사로 만들어 양대 조선사에 편입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
올해는 100%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2019년 인도 기준으로 볼 때 물량이 다 찼다며 "2020년 3~4분기 일감까지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
지난해 영업이익 7300억원 중 정부 지원 등을 제외하고 순수한 영업활동 이익은 3000억원으로 추산
>> 연매출 10조원 규모가 어떻게 "작고 단단한 회사"인지 의아합니다. 드릴쉽 발주가 없는 지금 10조원 매출이면, 호황기 수준의 배와 해양을 하겠다는 말입니다만...

▶ 대조양, 신용도 상향 낙관론 VS 신중론 팽팽

<http://lnr.li/ZFHed>

한국기업평가는 채무재조정에 따른 펀더멘탈 변화를 감안해 대우조선해양 기업신용등급(Issuer Rating)을 BB+로 평가
최근 한국기업평가는 기업신용평가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BB+(안정적) 등급을 평정: 앞서 발행된 회사채 등급은 여전히 CCC(안정적)
한기평과 달리 현재 CCC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NICE신용평가는 신중한 접근
채무재조정은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강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
나신평 관계자는 "지난해 6000억원 가량의 순이익을 내긴 했지만 현금흐름은 마이너스인 상태"라며 ...
... "구조조정을 통해 채무재조정을 했더라도 자생력과 현금창출능력 등이 회복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힘

▶ 중소형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

△ 탈황 스크러버 기술 '최고'... 세계로 뻗어가는 파나시아

<http://lnr.li/GW7aM>

스크러버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진행하는 황산화물 규제를 피하기 위한 기술로 물을 이용해 선박이 내뿜는 오염된 공기 속 황산화물을 정화하는 장비
5월 유럽 선주의 아프라맥스(AFRAMAX)급 11만 4000t급 탱커 2척과 국내 선주사의 32만 5000t급 VLOC(초대형광탄운반선) 2척에 친환경 스크러버 설치 계약을 체결
지난 2월 우민해운에 순수기술로 개발한 스크러버를 국내 최초로 납품한 데 이어 현재까지 총 21척을 수주
파나시아는 기존 선박에 스크러버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 지난달 17일 한진중공업과 업무협약
한진중공업은 장비 설치, 시공, 엔지니어링을 맡고 파나시아는 스크러버를 공급하는 방식

△ 동성화인텍, 中조선소에 선박 보령재 공급...200억 계약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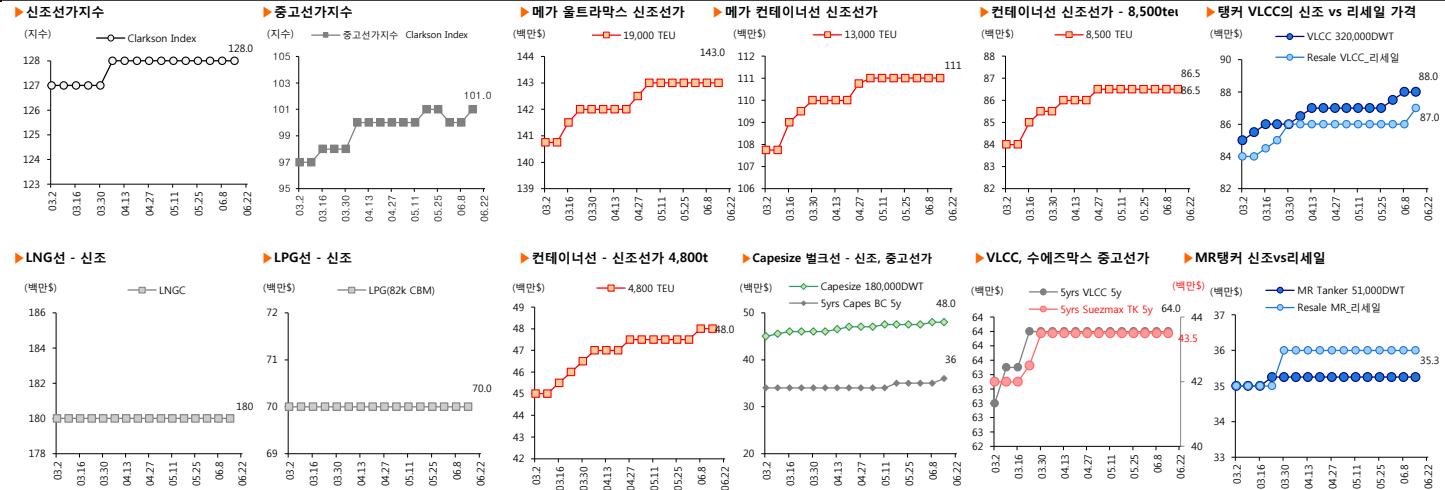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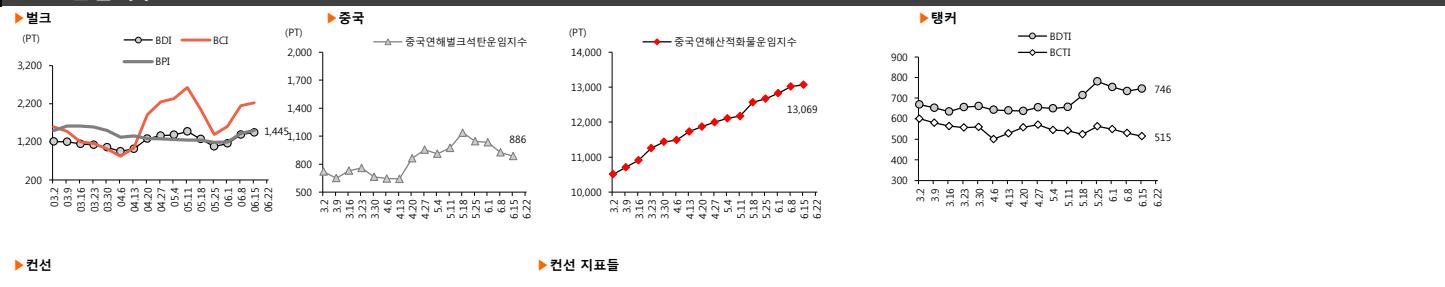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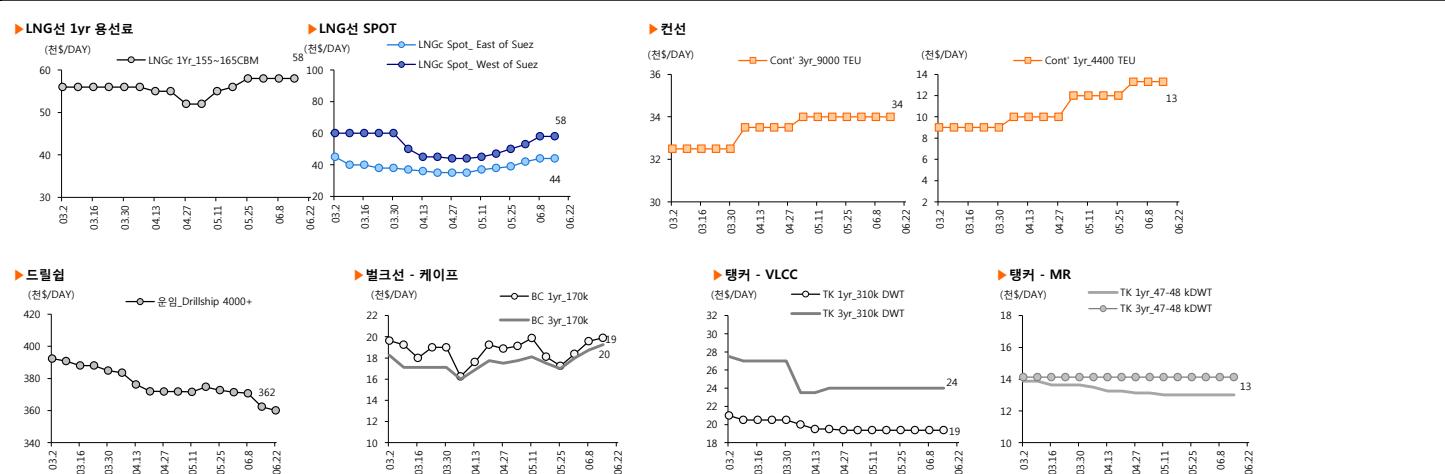
<http://lnr.li/9koz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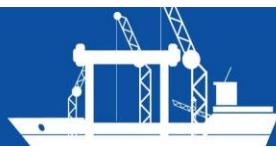
동성화인텍이 중국 후동중화조선과 200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
프랑스 컨테이너선 해운사인 CMA-CGM이 후동중화조선에 발주한 2만2000TEU 규모 컨테이너선 5척에 필요한 자재 공급계약
>> 한국 카본도, CMA-CGM발 LNG추진선 탱커 보냉재를 먼저 수주했습니다.

△ "스크러버가 대세"-전세계 탑재 결정 선박 800척 넘어서

<http://lnr.li/Owob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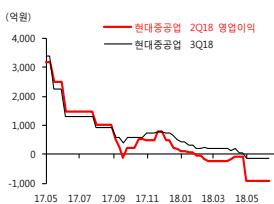
유럽선급협회 소속 DNV-GL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스크러버를 탑재했거나 탑재하기로 결정한 선박의 척수는 이미 800척을 넘어 817척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최근 2~3개월 사이에 약 300척 가량 급증
국제방커산업협회(IBIA)가 지난해 하반기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크러버를 탑재하기로 결정한 선박은 약 400척
DNV-GL에 따르면 스크러버의 탑재는 환경 대책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크루즈에서부터 시작
이달 초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선박박람회인 '포시도니아(POSIDONIA)' 부속 행사로 열린 BIMCO 세미나에서도 스크러버 예찬론
미국선급(ABS)의 스타마티스 프라델로스 선임연구원은 "신조선의 경우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게 거의 표준이 돼가고 있다"
DVB뱅크의 해운리서치팀 브렌트-페터센 팀장은 "선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선박이 스크러버를 장착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며 ...
... 용선 경쟁력도 높아져 선박금융 조달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평가
제임스 리케 선박애널리스트는 "VLCC(초대형 원유운반선)에 스크러버를 장착하면 8~12개월내에 장착비용 회수가 가능하다"고 분석


신조선가 & 중고선가

운임지수

운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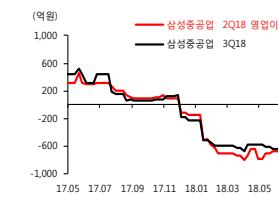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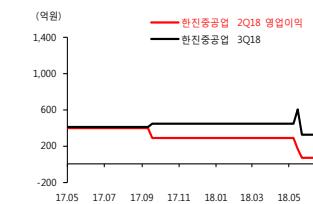
▶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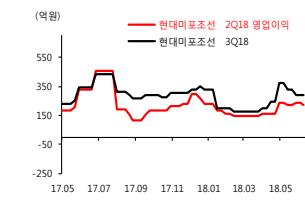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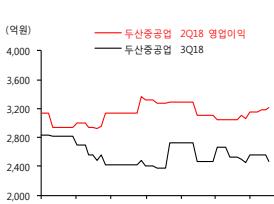
▶ 한진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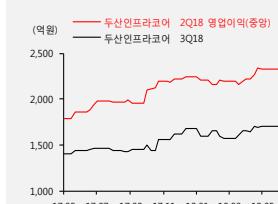
▶ 현대미포조선



▶ 두산중공업



▶ 두산인프라코어



▶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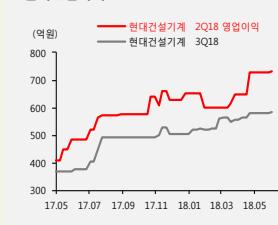
▶ 두산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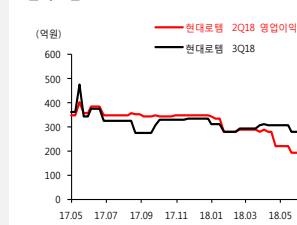
▶ 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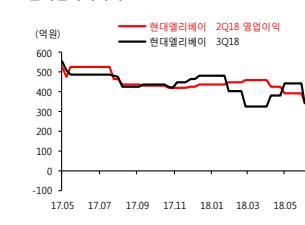
▶ 현대건설기계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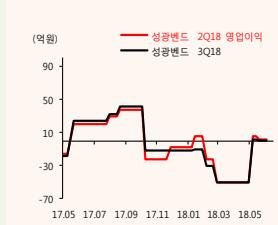
▶ 현대엘리베이터



▶ LS산전



▶ 성광밴드



▶ 태광



▶ 하이록코리아



출처: Dataguid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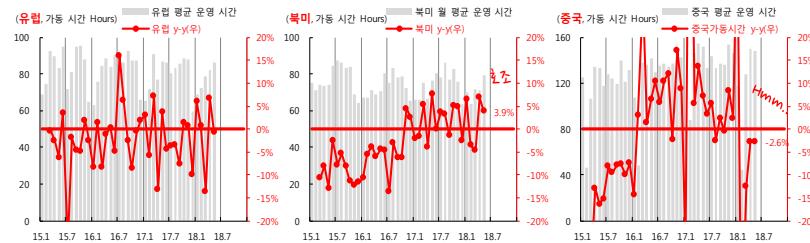
그룹	종목	2018 EPS(월)										Chang(%)	2018 PER	총가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8.05.19	18.05.26	18.06.02	18.06.09	18.06.15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조선	현대중공업	1,027	-113	-1,591	-1,775	-3,196	-3,279	-3,143	-3,330	-3,163	-39%	-17%	-36.4	115,000
	삼성중공업	-324	-382	-440	-474	-375	-375	-367	-372	-368	14%	-4%	-19.9	7,320
	현대미포조선	4,093	3,346	2,347	2,489	5,949	5,949	7,080	7,080	7,423	198%	25%	12.1	89,500
	한진중공업	29	-74	-509	-16	9	-224	-224	-75	-75	30%	30%	-44.4	3,340
두산	두산중공업	1,420	1,355	1,240	1,154	851	851	788	750	707	-39%	-17%	25.1	17,750
	두산인프라코어	1,155	1,175	1,253	1,255	1,500	1,500	1,500	1,499	1,436	14%	-4%	7.0	10,100
	두산엔진	83	22	-122	-148	-136	-120	-120	-171	-171	30%	30%	-41.7	7,150
기계	현대건설기계	15,531	16,053	15,351	14,839	13,657	13,903	13,930	13,906	13,782	-7%	1%	11.2	154,500
	현대일렉트릭	10,761	10,755	7,642	7,556	4,840	4,840	3,111	3,201	3,201	-58%	-34%	24.5	78,500
	LS산전	4,803	4,718	4,626	4,476	4,804	4,817	4,972	4,963	4,930	10%	3%	15.2	75,100
	현대엘리베이터	5,603	5,603	3,877	3,595	2,558	2,541	2,375	1,915	1,915	-47%	-25%	55.1	105,500
방산	현대로템	841	811	757	714	567	567	490	467	467	-35%	-18%	69.5	32,450
	한국항공우주	1,627	1,431	1,280	1,228	1,223	1,297	1,305	1,285	1,300	6%	6%	35.1	45,600
	한화애어로스페이스	1,806	1,634	912	911	635	615	636	636	636	-30%	0%	48.1	30,600
	LIG넥스원	3,873	3,560	2,466	2,366	2,223	2,223	2,223	2,223	2,180	-8%	-2%	23.8	51,900
피팅	성광밴드	106	-8	-38	-38	-70	-70	-55	-55	-55	0%	0%	-212.5	11,700
	태광	302	302	302	302	302	302	302	302	302	0%	0%	41.2	12,450
	하이록코리아	1,912	1,765	1,413	1,413	1,322	1,322	1,297	1,297	1,297	-8%	-2%	22.9	29,700

그룹	종목	2018 BPS(월)										ROE	2018 PER	2018 PBR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8.05.19	18.05.26	18.06.02	18.06.09	18.06.15	2018	2019		
조선	현대중공업	233,154	231,574	240,578	174,921	169,511	169,607	170,189	169,692	169,773	-2%	1%	0.7	
	삼성중공업	19,316	20,050	20,352	19,596	12,386	12,386	12,291	12,286	12,286	-3%	0%	0.6	
	현대미포조선	129,261	124,471	126,280	120,913	118,112	118,112	118,347	118,347	118,651	6%	5%	0.8	
	한진중공업	8,773	6,782	6,105	6,105	6,133	5,593	5,338	5,338	5,338	-1%	-8%	0.6	
두산	두산중공업	30,258	30,085	29,190	28,884	30,546	30,546	30,545	28,037	28,567	2%	5%	0.6	
	두산인프라코어	11,654	11,538	10,899	10,524	9,877	9,877	9,877	9,877	9,537	15%	15%	1.1	
	두산엔진	7,853	7,885	7,612	7,613	7,683	7,593	7,593	16,017	16,017	-1%	0%	0.4	
기계	현대건설기계	128,963	135,467	129,371	135,151	139,230	139,230	139,263	139,263	139,263	10%	11%	1.1	
	현대일렉트릭	111,365	110,172	106,687	111,365	108,247	108,247	107,159	107,159	107,159	3%	7%	0.7	
	LS산전	43,668	43,275	42,954	42,576	42,835	42,840	42,823	42,915	42,923	11%	12%	0.0	
	현대엘리베이터	43,206	43,206	36,829	34,152	32,217	31,998	31,998	41,903	41,903	5%	6%	2.5	
방산	현대로템	17,452	16,973	16,526	16,557	16,424	16,424	16,389	16,389	16,389	3%	7%	2.0	
	한국항공우주	14,389	14,040	12,950	12,897	12,551	12,548	12,439	12,439	12,294	11%	13%	3.7	
	한화애어로스페이스	45,312	45,631	42,105	42,135	41,295	41,295	41,271	41,271	41,271	2%	3%	0.7	
	LIG넥스원	32,603	32,108	29,179	28,622	29,139	29,139	29,139	29,139	28,904	8%	10%	1.8	
피팅	성광밴드	16,328	16,235	15,972	15,972	15,995	15,995	15,969	15,989	15,989	0%	2%	0.7	
	태광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2%	0%	0.7	
	하이록코리아	25,343	25,343	24,832	24,832	25,123	25,123	25,123	25,123	25,123	5%	7%	1.2	

출처: Data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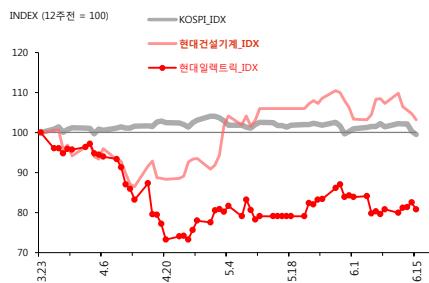


▷ Komtrax 굴삭기 가동시간: 북미 시장 호조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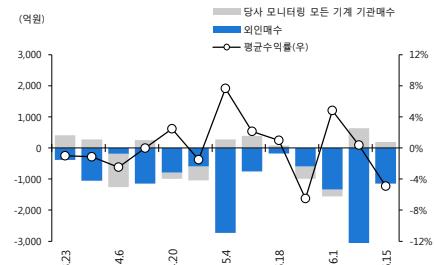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당사 기계 선호주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률



기계 업종 뉴스

건설기계

△ 현대건설기계, 인도서 굴착기 공장 1만대 규모로 증설

<http://lnr.li/TycifW>

인도 굴착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말까지 인도 푸네공장의 생산 능력을 연간 1만대 규모로 순차적으로 확대

인도 공장은 8~34톤급 중·소형 굴착기를 연간 6000대 규모로 생산

 이번 공장 증설을 통해 인도에서 소형·대형굴착기까지 판매모델을 다양화하고, 영업/서비스 역량 강화 등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
 인도의 건설기계 시장도 지난해 2만대 규모에서 2022년 3.8만대 수준으로 연 13.7%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

 지난해 1~5월 인도에서 1700대 굴착기를 판매한 현대건설기계는 올해 같은 기간 35% 늘어난 2300여대를 판매해 시장 점유율 2위(18.1%)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2008년 11월 국내 건설기계 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인도에 생산공장을 설립

△ 두산중공업의 밥캣 지분 활용법은?

<http://lnr.li/hFned>

두산중공업의 두산밥캣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를 활용한 자금 조달 가능성에 거론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하면서 두산중공업은 두산엔진이 보유했던 두산밥캣 지분(10.55%)을 직접 보유

고효율 가스터빈 기술 개발 등 대규모 R&D 투자를 추진 중

내년 4000억원 규모 전환상환우선주(RCPs) 상환도 대비: 주식담보대출이나 유동화 작업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

두산밥캣의 최대주주인 두산인프라코어는 보유지분 4500만주를 담보물로 설정: 두산밥캣 전체 지분의 45% 규모

△ 볼보건설기계 창원공장 굴삭기 누적 생산 20만대 돌파

<http://lnr.li/XYYKK>

창원공장 설립 20년 만에 굴삭기 누적생산 20만 대 돌파기념식

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지난 1998년 삼성중공업의 건설기계 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국내에 지사를 설립

지난 2006년에 150억 원을 투자해 연구개발단지 내 첨단 기술개발센터를 지은 창원공장은 ...

... 굴삭기 부문 세계 최초 가상장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한 제품 개발 연구소를 통해 굴삭기 생산성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

창원공장에서 생산되는 굴삭기의 내수 대 수출 비율은 약 20대 80: 비용 기준 85% 이상 부품을 국산화

큰 기계들

△ 두산중공업, 100억대 입찰담합 과정금 소송 패소

<http://lnr.li/409R1>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4개 공구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두산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

... 패소해 100억대의 과정금을 물게

두산중공업은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KCC건설과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

...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

▶ 현대로템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무기 전시회 '유로사토리'에 참가

<http://lnr.li/N9SOw>

프랑스 지상장비협회(GICAT) 산하 전시위원회(COGES)에서 2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무기 전시회

이 전시회에서 K2 전차와 8x8 차륜형장갑차, 장애물개척 전차 등 방산 부문 주력제품군을 선보인다.

▲ 국내 최초 항공MRO 전문업체 'KAEMS' 정식 출범


<http://lnr.li/zXUjai>

국내 최초의 항공기 정비·수리(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KAEKS)가 14일 정식 출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65.5%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 한국항공공사, BNK금융그룹,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이 주주로 참여

지금까지 우리나라 항공MRO 전문업체가 없어 연간 약 1조원 규모 정비를 해외 업체에 의존: 저비용항공사(LCC) 안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

작은 기계들

△ 한국풍력산업협회, 국내 해상풍력산업 확대 위한 좌담회 가져

<http://lnr.li/5RQGs>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한국은 2030년까지 12GW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

한국해상풍력 사장은 2,5GW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상사업에 대해 설명

3MW 20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증단지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19년 11월까지 진행될 예정

GWEC(세계풍력에너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풍력발전 신규설비는 5만2,573MW 누적 설비용량은 53만9,581MW를 달성

△ 비에이치아이, 한수원과 440억원 공급계약 체결

<http://lnr.li/uTaVd>

비에이치아이 최근 매출 대비 1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기간은 2020년 6월17일까지

건설기계

▶ 한국시장 상장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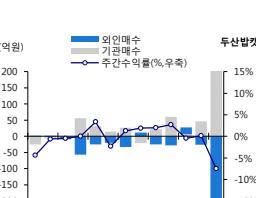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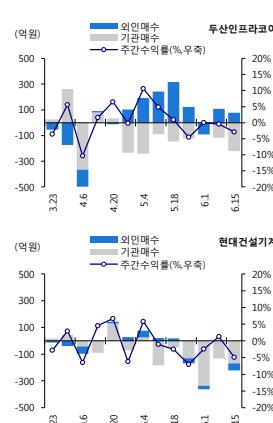


▶ 대형 vs. 미니/소형 vs.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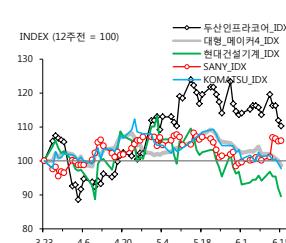


건설장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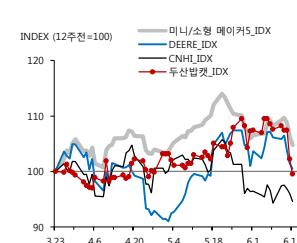
▶ 건설장비 메이커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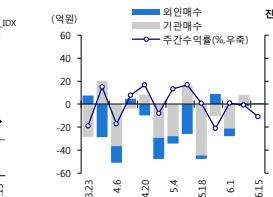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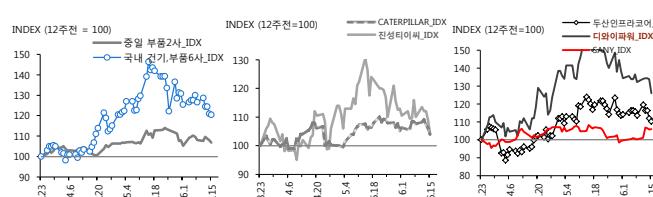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중, 사니, 고마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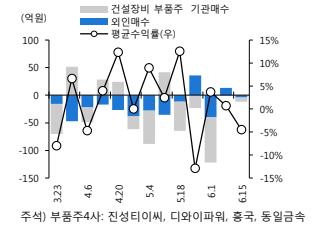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밥캣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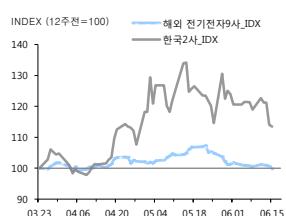


▶ 건설장비 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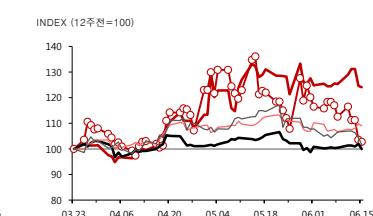


중전기

▶ 한국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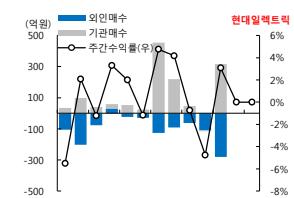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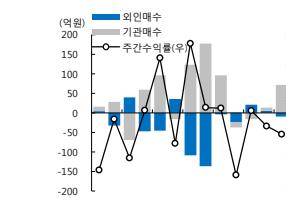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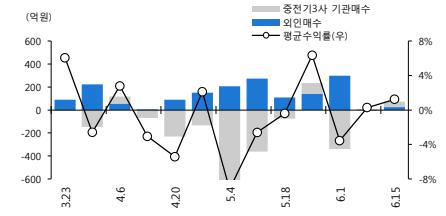


▶ 중전기 회사들 주가 Index



중전기 수급

▶ 중전기3사(현대일렉트릭, LS산전, 효성)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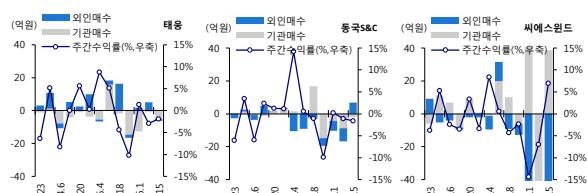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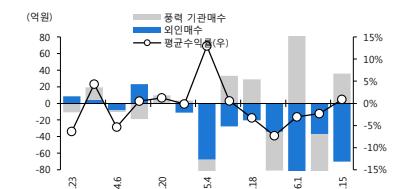



풍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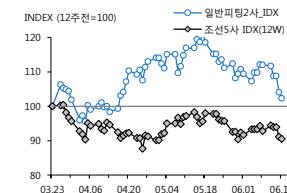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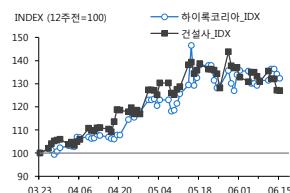
▶ 한국 풍력 부품사 vs. Global Peer


풍력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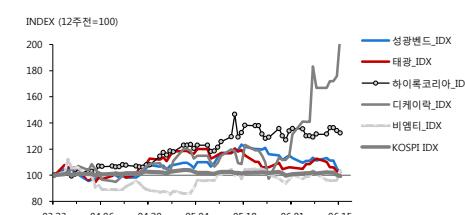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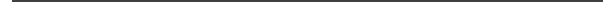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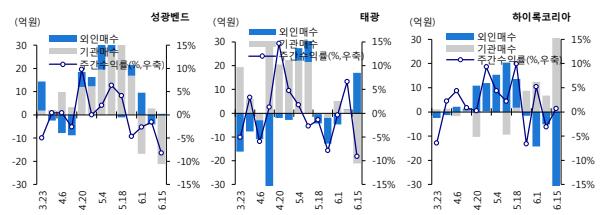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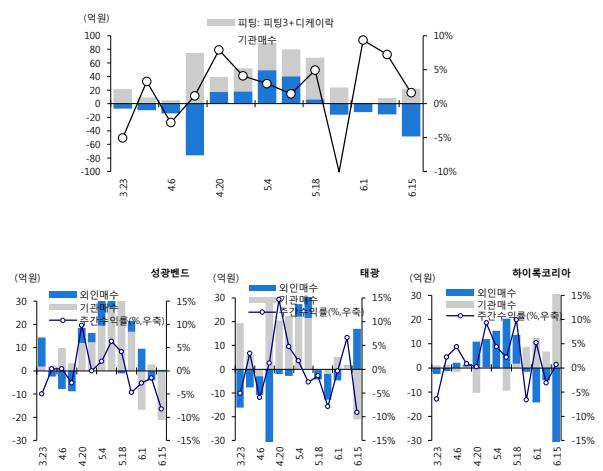
▶ 풍력부품4사 수급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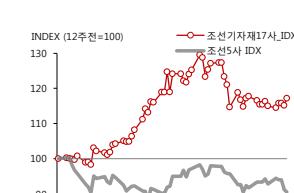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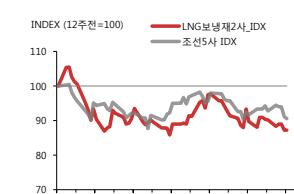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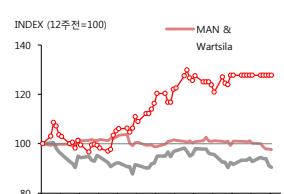
▶ 피팅 VS 전방1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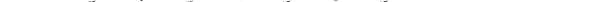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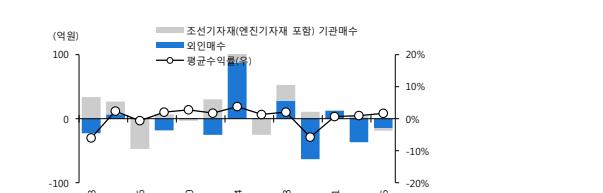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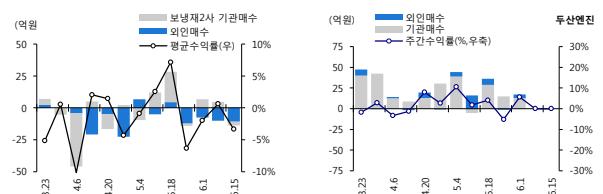
▶ 피팅 및 벨브사들


피팅업 수급

조선기자재

▶ 두산엔진 vs. 조선5사 vs. 해외 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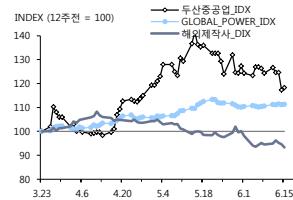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 보냉제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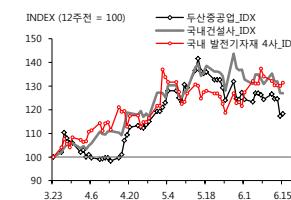



발전 및 발전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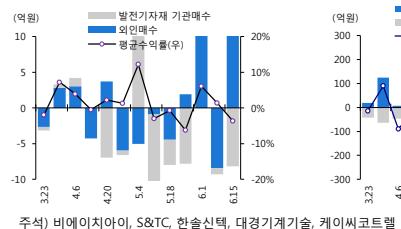
▶ 두산중공업 VS 해외 PeerGroup



▶ 한국EPC vs 두산중공업 VS 발전기자재


발전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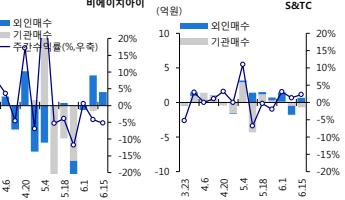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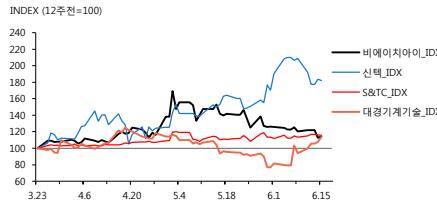
▶ 발전기자재5사(두산중공업 제외)



두산중공업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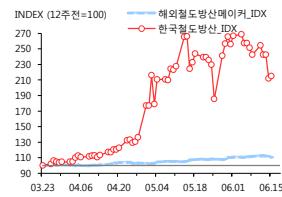
▶ 발전기자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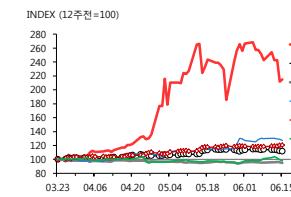
(억원)

철도/승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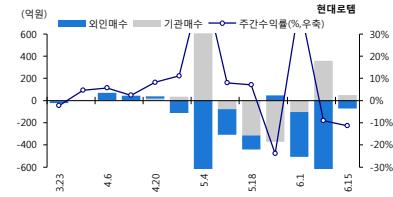
▶ 철도 vs Global Peer



▶ 철도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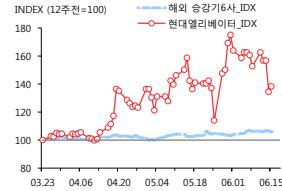

철도/엘리베이터 수급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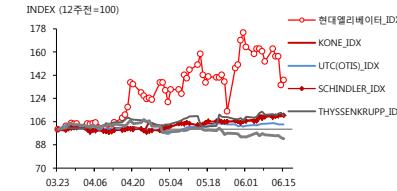


현대로템

▶ 엘리베이터 vs Global Peer



▶ 승강기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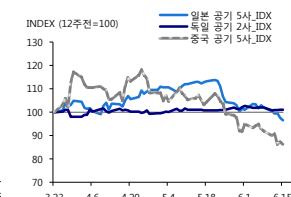
▶ 현대엘리베이터

공작기계

▶ 한국소형6사 vs Global Peer



▶ Global Peer - 지역별


공기 수급

▶ 공작기계 부품 수급



(억원)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기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시와 개별사 관계에 있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최광식, 원민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돋우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주체 투자동급 (주체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6개월간 주체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7월1일부터 적용)

- Buy(매수): 주체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주체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주체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주체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중립), - Underweight(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8-03-31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93.60%	6.40%	-